

Journal of the Humanities

인문연구

제104호 / 2023. 9.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소 임원

소 장: 김기호 교수(영남대 영어영문학과)

운영위원: 손승희 교수(영남대 역사학과)
백찬욱 교수(영남대 불어불문학과)
송병렬 교수(영남대 한문교육과)
이현진 교수(영남대 유아교육과)
우재호 교수(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부)

연구교수: 윤경애(영남대 일어일문학과)
임도현(영남대 중어중문학과)

연 구 원: 김영철(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유정(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이현주(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행정담당: 김유정(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목 차

- 편집노트 편집위원회 / i

【일반논문】

- 아파트 디스토피아를 다시 생각하기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표상의 해방적 전유와 거주하기의 상상력
..... 유인혁 / 1
- 독후활동으로서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연구
- 전래동화 <도깨비 돈>을 읽고 - 조선영 / 45
- 『신자전』(新字典)의 복수 자석 연구 서수백 / 77
- 文化大革命과 ‘灰皮書’의 수용과 유통
- 『新階級』을 중심으로 - 손승희 / 115
- 힌디어 헤게모니 초기 형성
- 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을 통해 고찰한 문화적 패권과 문화적 동의 -
..... 김용정 / 143
- 탈북이주여성의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그 이후
: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참가자를 중심으로 신난희 / 185
- 일반적 파시즘의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의문
- 파시즘은 민족주의인가? - 장문석 / 211

【편집노트】

이번 호에는 총 14편이 투고되어 7편이 게재 확정되었다. 게재률은 50%이다.

이번 104호에는 문학, 언어학, 철학, 역사학, 교육학,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다수 투고되었다. 그리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7편의 논문들이 실리게 되었다.

특히 이번 104호에는 인문학적으로 접한 사회문화에 대한 고찰이 담긴 논문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힌디어 헤게모니 초기 형성-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을 통해 고찰한 문화적 패권과 문화적 동의」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도의 북서부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언들이 어떻게 힌디어벨트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논문으로 언어가 가지는 헤게모니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 주목된다.

「탈북이주여성의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그 이후: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참가자를 중심으로」는 민주시민교육에 참가한 탈북이주여성이 교육 참가 십여 년 이후 당시 어떤 교육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기억하고 있고, 이후 한국사회 생활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참가자 여성들의 기억 구술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는 논문으로서 현재의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이주여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유의미한 논문이었다.

「일반적 파시즘의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의문- 파시즘은 민족주의인가? -」는 일반적 파시즘에 대한 그리핀의 유명한 정의에 의문을 붙이며 파시즘이 대중 정치에 기초한 혁명적 민족주의라는 종래의 정의에 의식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모색한 논문으로서 주목을 요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인문연구』 104호에 게재된 논문들을 읽고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게재 확정된 논문들에 쏟았을 투고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쉽게 이번 호에 실리지 못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